

# WTO 체제의 출범에 따른 우리나라 중전기업계의 대응 방안 (5)

홍 광 표  
동아건설산업(주) 이사

## 3. 대응방안

### 가. 정부의 정책과제

WTO협정의 체결로 기존의 關稅障壁과 非關稅障壁이 제거되고 조달협정이 내년부터 발효되는 등 무역 자유화의 원칙이 실현됨에 따라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무역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교역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력에 적응하고 무역질서에 우리 정부의 유연성을 발휘하여 상황 변화에 사전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WTO의 새로운 의제와 시행과정에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파악 검토할 수 있는 "WTO시행 조정팀"을 운영하여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자율과 창의가 자연스럽게 배양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 선결 과제이다.

즉 선진국의 이익 보호성 무역조치를 협상 초기단계부터 막아 오용되지 않도록 하며 공정한 경제 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개방환경에서 우리의 방향을 잃을 때는 중전기 산업이 수입상으로 전락되는 것을 염려해야 한다. 또한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과제에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지 않을 정도의 노동권 보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에 관심이 요구된다.

반면에 우리의 중전기 산업은 정부 및 공공부문을 위주로 한 내수시장에 수요가 편중되어 있었고 기업 대부분이 자체기술 개발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일본 및 미국 등 선진국들로부터의 기술도입에 의한 조립생산에 의존해온 관계로 기술자립도가 떨어지고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최근의 컴퓨터, 반도체 응용기술, 각종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중전기에 대한 수요를 종래의 단품위주의 수요체계에서 전력

설비의 자동운전 및 자동관리 시스템까지 포함하는 중전기기의 유지관리, 보수 등의 사후 관리 분야 및 시스템산업의 설계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까지도 중전기기의 새로운 분야로 등장하고 있으며 각종 산업설비도 대형화 첨단화하고 있어 고도의 첨단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1997년부터 발효될 조달시장 협정도 그동안 정부의 보호하에서 국내조달시장을 독점하여 왔던 국내 기업들에게는 국제경쟁력 확보를 요구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중전기기 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대량생산보다는 주문생산에 의하여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고 내수시장이 협소하고 해외의 수출시장의 확보가 어려워 외국기술의 도입을 통한 조립생산에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기술수준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중전기기 산업은 전기, 전자, 기계적 기술이 종합적으로 접목되는 종합기술산업이므로 이들 분야의 종합적인 발전 없이는 기술개발이 어려운 산업이며 초고압, 대용량일수록 고도의 기술과 안정성이 요구되며 종류와 규격이 다양하여 표준화 및 규격화가 어려운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복잡하고 고도로 정밀을 요하는 선진국 전용산업의 특성에 반하여 우리의 중전기의 기술개발은 투자가 저조하며 그 결과 제품의 시장경쟁력을 유지시켜주는 기술개발이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신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체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연구인력의 공급이 어려우며 중전기기에 대한 표준규격이 없고 시험, 검사기관 및 시험 검사 장비의 부족으로 기기생산 및 시험 검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우리 중전기기 산업의 급변하는 국내·외적인 여건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제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정부의 적극적인 중전기기 산업 지원정책의 준비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서 통상산업부는 "중전기기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장기계획으로는 "2000년을 향한 중전기기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은 산업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중전기기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하여 산업구조를 선진화하여 중전기기 산업을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기본골자로 하고 있다. 2000년대를 향한 우리 중전기기 산업의 주요목표는 우리의 중전기기 산업을 현재 세계 12위권에서 8위권으로 진입시키고 수출을 현재의 18억 불에서 47억불로 증가시켜 세계 중전기기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4.4%로 증가시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서 현재 내수 및 관납위주로 되어 있는 중전기기 산업을 수출위주의 산업으로 전환시키고 생산방식도 현재의 외국의 기술도입에 의한 모방생산을 탈피하여 독자적으로 첨단핵심기술을 개발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 국제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중전기기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대책없는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축소나 폐지가 아닌 WTO협정에 상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기존의 개방정책을 계속 진행해 나가되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본,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전용 해외투자자금」 제도를 신설하고 지방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제품의 공동전시, 판매, 종합상담, 기술개발지원, 창업·보육, 수·출입 대행 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정보의 제공기능까지 추가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개방에 대비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중전기기 업체의 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폭적인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금지원 이외에도 개발된 신제품에 대한 시장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1~5년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전기

기업체의 기술개발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우선구매 정책은 WTO협정과 상치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어 조심스럽게 운용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허용보조금의 형태로의 전환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전기 기술개발자금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한전에 상환되는 기술료를 한국전기공업진흥회에 상환창구를 만들어 민간형태의 기술자금을 조성,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1992년 5월부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중전기제품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인기관의 인증시험의 의무화로 기업의 추가적인 시험관련비용의 부담 및 시험소요기일에 따른 납기 이행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전기 시험방법 및 기준에 관한 요령을 제정하여 KS 품자 등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의무를 면제하고 생산자체 시험만으로도 제품의 출하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더욱 덜어 주어야 한다.

또한 중전기 업체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2.9kV급 실증 시험장과 500MVA급 단락 시험장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1997년 완공을 예정하고 있어 업계의 생산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지나, 이외에 정부가 우리 중전기 산업을 세계 8 위권으로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체계를 조직화 체계화하여 산·학·연 연계체제의 지원으로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하며 기술 투자재원을 지원하여 첨단 유망산업의 육성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중전기 산업 구조의 선진화 조정 및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수입대체 및 수출산업화 촉진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WTO체제하에서 서비스협정, 지적재산권보호협정 등으로 추가적인 기술도입비용 부담을 안게 되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세계화 기반 조성 차원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외국기업 정부 학계 및 연구기관간의 협력체계를 형성하여 상호정보교환체제로 협조협정이 되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해외 시장정보 지원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 나. 기업의 대응전략

WTO출범은 냉전구도 붕괴의 바탕에서 하나의 지구촌을 낳아 무한경쟁의 열린 세계화가 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으로 세계는 좁아지고 나아가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지구는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국경이 무너지고 다자간 이해관계는 심도있게 신통상 의제로 제안되고 선진국의 영향은 점점 커져 이제 우리는 선진국 진입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따라서 WTO체제의 多者主義에 입각한 새로운 세계의 무역질서에 적응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중전기 업계는 이미 각국이 제출한 관세인하계획표 등 WTO협정후 변화된 수출대상국의 무역환경변화 자료와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산업기술 지원제도와 자금지원제도 그리고 해외시장정보와 기술협력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지원이 없이도 기업 스스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여야 한다.

WTO체제하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시행해 왔던 각종 수출관련 세제지원이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해 왔던 중소기업지원제도, 무역금융 등의 보조금 성격의 지원제도가 역시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의 보호와 육성정책 하에서 성장하여온 우리 중소기업은 자체적인 국제 경쟁력 향상 노력이 없이는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허용보조금인 연구개발관련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체 기술력을 보유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1997년부터 발효되는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그동안 내수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여왔던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의 조달시장이 외국의 기업에 의해 잠식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정부의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시책 등 정부의 보호육성정책에 의존하

◆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우리나라 중전기업계 대응방안 ◆ ◆ ◆

여 판로를 개척하여온 우리의 중소기업은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상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는 등 高附加價値의 상품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WTO체제하에서는 환경관련기준들이 새로운 수입억제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의 기업들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개발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산업인력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전기 제조 및 연구분야, 전력분야, 전기공사분야 등 종합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건의하여야 하며 생산자 자체의 특수성을 살리고 유지하기 위한 교육분야에 투자,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은 임금, 복지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노사화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적재산권 협정과 관련하여 기업은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여야 하며 이미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를 출원하고 국내기업간 공동사용체제 등을 확립하여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은 자체브랜드를 개발하여 자기상표 부착에 의한 수출을 늘려 WTO체제하에서 지적재산권 협정으로 보호되는 의장권과 상표권을 확보하여 해외시장에서의 자기 브랜드 상품에 대한 시장을 개척하여야 한다.

기술장벽협정과 관련하여 수출대상국들로부터 우리 수출 상품에 대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들 수출 대상국들의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판정절차의 개정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대국의 질의처를 통하여 신속히 파악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ISO 등 국제표준화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표준화 규격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무세화 혹은 관세인하, 회색조치 철폐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개방이 확대된 품목에 대하여 반덤핑 조사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 투자시 제기될 수 있는 우회 덤핑 被訴에 대비하기 위해서 부품업체와 동반진출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WTO체제하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시행하여 온 중소기업 고유업종, 단체수의계약, 각종 보조금 제도 등이 폐지되거나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변화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경영합리화,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만이 WTO체제하에서 우리 기업이 생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여 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 문

- 1)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년호」
- 2) 對外經濟政策研究院, 「UR 총점검」 1993. 12
- 3) 對外經濟政策研究院, 「WTO 出航과 新交易秩序 一分野別 內容과 示唆點一」, 1994. 7
- 4)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무역관련정책 및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1992. 2
- 5) 대우경제연구소,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경제」, 1994
- 6) 대한전기협회, 「대한전기협회지」, 각년호
- 7) 산업연구원, 「21세기를 향한 한국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1994
- 8) 박영욱, 「중전기산업의 구조와 발전방향」, 산업연구원, 1993. 12
- 9) 통계청, 「광고업조사보고서」, 각년호
- 10) 통상산업부, 「21세기를 향한 중전기 발전전략」, 1995
- 11) 통상산업부, 「통상산업백서」, 1995
- 12) 한국무역협회, WTO협정 등에 의한 우리나라의 중전기기류의 연도별 양허관세율표, 1995
- 13) 韓國産業銀行, 「韓國의 産業」 上卷, 1993.
- 14) 한국전기공업진흥회, 「전기공업」, 각년호

2. 영 문

- 1)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Marrakesh, 1994. 4
- 2) GATT 「Uruguay Round Final Act」 1994. 4
- 3) Hoda A., "Trade Liberalization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Presented on the Informal Workshop on the New World Trading System, April 1994

〈연재 끝〉 ■